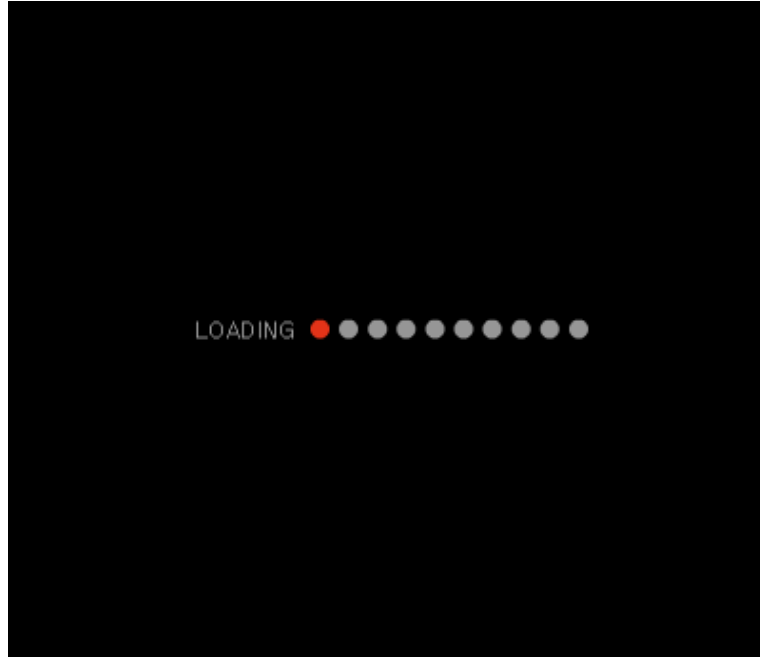




"3년이내 기금 50억 확보하겠다"

정태환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상임이사 인터뷰

2008-05-14 22:41:52



지역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창조로 지역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 11월 출범한 재단법인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사장 최명희 강릉시장)이 10여년을 맞고 있다.

20억원의 자산으로 지난 2000년 3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시작한 재단은 8년여를 경과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전 예총강릉지부장을 지냈던 정태환씨가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일 오후 강릉문화예술회관 1층에 자리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사무실에서 정 상임이사를 만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정 상임이사는 "올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3년이내에 기금 5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1억 3000만원의 재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과 매장문화재연구소를 발족하겠다"고도 했다.

정 상임이사는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데일리안 강원 전도일 기자]